

보성군 '해양레저 메카' 돛 올렸다

'보성군수배 비봉마리나 전국요트대회' 성공리에 마쳐 득량만 일대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돋움 기대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보성군이 '2019 보성군수배 비봉마리나 전국요트대회'를 열고 해양레저 메카로의 돛을 올렸다.

보성 비봉마리나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대한요트협회가 주관했으며 국가 대표 요트선수 30명과 동호인 선수단 150명 등이 참가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레이스를 펼쳤다.

초·중등부 유소년 전문선수 와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종목의 동호인 선수가 참여해 3종목 4개 클래스 14개부로 나눠 각 부 별 7차례 레이스를 진행했다.

비봉마리나는 득량만으로 형성돼 특유의 잔잔한 파도와 온화한 기후, 적당한 바람이 갖춰져 연중사용이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 경기장 주변 암초와 양식장이 없어 요트경기를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번 대회가 비봉마리나에서 옹포 해변으로 이어지는 득량만 일대를 레저, 문화, 스포츠, 휴양이 어우러진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돋움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비봉마리나를 남해안 요트 산업 중심지로 키워 가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규제 개혁까지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9월 오픈한 '울포해수욕장센터'와 함께 '울포 해변 활어잡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성군 비봉마리나에서 옹포해변으로 이어지는 득량만 일대에서 전국요트대회 레이스가 펼쳐졌다. 대회 장소인 비봉마리나 요트 선착장. <보성군 제공>

기페스티벌(5-9월)', '해양레저스포츠제는 해양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인요한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공동이사장과 박한길 에터미(주) 회장, 김순호 구례군수 등 지리산 선교유적지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 제공>

지리산 선교 유적지 보존·계승 사업 추진

노고단·왕시루봉 등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행적 재조명

노고단 왕시루봉 유적지 등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리산 선교 유적지의 보존·계승을 위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사장 소강석 목사·공동이사장 인요한)과 유류기업인 에터미(주)는 지난 18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문화유산 및 선교 유적지의 가치를 계승하는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노고단과 왕시루봉 선교유적지를 비롯,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구례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리산 유적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군에 있는 왕시루봉 유적지 관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인요한 공동이사장은 "나는 어려서 왕시루봉에서 예배드리며 자랐다. 어린 자녀를 잃은 선교사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조선을 더욱 사랑하며 영성을 키워가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왕시루봉 선교사유적지의 보존은 너무나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리산 선교 유적지는 구례의 소중한 자산이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의 믿음과 희생을 숨쉬는 곳"이라며 "왕시루봉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군의 관광자원으로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터미 박한길 회장은 지리산 선교유적지 보존·계승사업을 위해 3억원을 후원했다.

박 회장은 "적박한 이 땅에 와서 교육과 의료, 복지 시설 등을 세우고 사랑으로 이 민족을 섬겼던 선교사들의 흔적을 우리가 잘 보존해 후세들이 교훈의 장소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고흥군, 귀향청년 일자리·정주여건 개선 총력

고흥군이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귀향청년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내사랑 고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내사랑 고흥기금 추가 조성금 7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귀향청년 초기 정착 플랫폼 마련을 위한 내사랑 고흥기금은 2022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조성해 현재까지 60억원을 확보했으며 2020년도 30억원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청년층 유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귀향 청년 U-turn 정착금 지원, 귀향 청년 빈집 수리비 지원, 귀향 청

년 주택 화재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귀향청년 초기정착에 기여했다.

내년에는 신규로 청년부부 U-turn 정착 플러스 장려금 지원(1500만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문화생활 인프라 지원(고흥 탐방), 청년유턴 고흥사랑 사관학교 운영 등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해 지역 출신 청년유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고흥군은 대도시 청년인구 유입과 귀향 고흥 3000호 달성을 위해 재부산 항우회 등 경향각지 청년 향우를 방문해 청년 U-turn 정착 간담회를 갖는 등 청년층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김철우 보성군수, 지역 청소년과 소통행보 나서

김철우(사진)보성군수가 지역 청소년과 소통 행보에 나선다.

보성군은 25일 오후 3시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철우 군수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Talk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보성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청소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1·2부로 나눠 진행되는 토크콘서트 1부에서는 '군수님과 함께 토크톡'이라는 주제로 포스트잇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 김철우 군수의 청소년기 이야기, 즉석질문 토크 등으로 진행된다.

2부는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 중인



팝핀댄스팀 AREA51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TV프로그램 '고등래퍼2'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 이로한이 '청소년 멘토 특별공연 및 꿈 이야기'라는 주제로 청소년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보성군에서 주최하고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축하행렬 재현

향교유림·초중생 등 참여 ...상소문 퍼포먼스도

곡성군은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곡성향교에서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축하행렬을 재현한다.

과거급제자 행렬(사진)은 '2019 향교서원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곡성군이 주최하고, 곡성문화원이 주관해 열린다.

행렬에는 곡성문화원 회원, 곡성향교 유림, 지역 초중학교 학생,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예정이다.

곡성군민회관에서 출발해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를 거쳐 드림하이 센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옥과중학교 취타대가 선두에서 흥을 돋우고, 화려한 깃발을 든 기수단, 포졸단이 뒤를 따른다.

행렬의 중심에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장원급제자를 태운 오펜가가 자리 잡고, 조선 시대 의상을 갖춰 입은 이벤트 행렬과 기다리 공연 등이 과거급제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학생들이 각각 군수, 교육장, 경찰서장 등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우수한 상소문을 쓴



학생이 어사화를 쓴 장원급제자가 되어 상소문을 올리는 형식으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구례군, 지리산베이스캠프 체험행사 개최

다음달 2~3일 명사와 함께하는 캠핑 토크·산악트레킹 등

구례군은 지리산 종주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구례에서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간 지리산베이스캠프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례군등산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구례지역에서 지리산 등산, 지리산둘레길과 삼진강길 트레킹, 캠핑을 활성화하고 동호인 유치를 위해 마련했다.

행사 장소인 지리산호수공원 오토캠핑장은 주변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만끽하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또 이 곳 캠핑장은 시설이 최근에 조성돼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캠핑객들이 이용하는 데 손색이 없다.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연인 등 동호인들이 즐겁고 추억이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

행사 첫날 명사와 함께하는 등산·캠핑 토크, 레크리에이션, 감성콘서트, 캠프파이어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날은 관광지 답사와 숲해설가와 함께 산악 트레킹이 있으며 피아골단풍축제장도 방문한다.

참가자에게는 텐트, 취사도구 등 캠핑용품과 식사, 기념품 등이 제공되고 이벤트에 참가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참가신청은 24일까지이며 팀당(4인기준) 참가비는 8만원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상가 1층 4거리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마트 운영 중
 - 급매 - 9억원 → 7억원(대출 2억 5천만원 포함)
 - 임대 - 협의
- 문의. 010-6834-7400

